



2022년 6월 5일(제1091호) **성령 강림 다독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경계를 넘어서”

사람에게는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경계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누군가의 가족,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 조국, 더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지구까지 우리의 경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정해주는 울타리들이 바로 우리의 경계이지요. 그래서 이 울타리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어가야 할 때는 또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 말기에 홍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 넘어서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특히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를 잘 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가능한 것이 사랑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갇혀서 자신만 바라본다면 그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지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또한 그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문이 잠겨 있는 방,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이층 방에 예수님은 마구마구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만든 경계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곧바로 소통했던 모습들도 하느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어떠한 경계도 문제 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에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편을 가릅니다. 내가 있는 쪽 편에 있지 않으면, 그들을 밀어내고, 마치 철천지원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경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반대편으로 넘어가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으면 예수님 편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 편으로 만들어주고, 내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이를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 경계 너머의 사람들, 내 편이 아닌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수(프란치스코) 신부
회랑(제11기동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부 속 기

사도 2,1-11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코린 12,3ㄷ-7.12-13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쌍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20,19-23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무 번째 시한

그중 4명은 배교하였으나 3명은 그들의 배교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1839년에 배교하였던 이(신규) 마티아가 지금은 용기로 가득 차 순교자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양을 신문 교우인 저의 사공 선실의 아버지와 남(경문, 南景文) 베드로가 본받고 있는데, 남 베드로는 전에 교우들에게 나쁜 표양을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사형장으로 언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교님의 복사인 (이재의) 토마스와 또 몇몇 주요 인물들을 반드시 붙잡으려 합니다. 포졸들은 약간 지쳐 있는 듯하고, 그래서 교우들을 찾아내는 데 열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천(利川)과 양지(陽智)와 은이,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갔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주교님과 다블뤼 신부님께서서는 저의 사형 이후까지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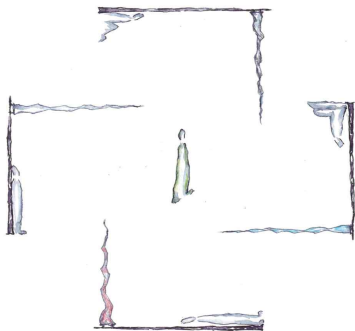
판관이 프랑스 것으로 생각되는 군함 3척이 외연도(外煙島) 근처에 정박하였다는 소식을 제게 전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 배들이 프랑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와서 조선에 큰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두 척은 내년엔 다시 올 것이라고 단언하며 떠났고, 셋째 배는 아직 조선 바다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39년에 순교한 3명의 프랑스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들이 온 이유를 아느냐고 제게 묻기에 저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프랑스인들은 이유 없이 어떠한 해도 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또 그들에게 프랑스가 강국이고 그러나 그 정부가 아량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명의 프랑스인을 죽였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선박들이 조선에 왔는지 주교님께서서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바람은



지금 부는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를 향하는가.

그 바람도
이 마음도
불어야 할 곳으로
향해야 할 곳으로
가겠지.

성화이야기

성령강림



장 르스타우드 2세
(1692-1768)
1732년 작
캔버스 위 유화
465x778cm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교회의 내부처럼 보이는 이곳은 양쪽에 기둥이 자리하고 있고, 중앙에 성모님과 제자들이 보인다. 인물들은 더러는 놀라움에, 더러는 두려움에, 그리고 더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제각각의 모습으로 성령을 맞이하고 있다.

중세교회에서는 성당 천장 내부에 성령이 신도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아, 성령 강림 대축일 및 축제 기간에 이곳을 꽃이나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곤 했었다.



김은혜(엘리사벳)

오스트리아 슬에 위치한 베드로와 비오로 성당 내부 모습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백호 유병을 신부

◆ 교구장 동정

- 삼위일체(계룡대 근지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5일(주일)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6월 7일(화) 11:00, 삼위일체 성당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